



박주용 이주영 선교사 기도편지

주소 변경: 0712khs@naver.com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타이완 방문

회의차 타이완을 다녀왔습니다. 22년만의 방문이었고, 분명히 그 세월 동안 변화가 많을텐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마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예전 공부했던 곳에 가서 그리운 분들을 만나 오랫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교제했던 집사님 권사님들과, 그곳 생활과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신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신학교 강의

5월과 7월에 S지역 신학교와 M국에 있는 화교 신학교에서 각각 한 주 동안 강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S신학교는 주로 동남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6월에 졸업했습니다. 이제 모교회로 돌아가 사역할 때 잘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M국의 M지역은 C국과의 접경지역에 있어서 예전에는 자유롭게 C국에 가서 학교도 다니고, C국에서도 이 신학교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G신학교는 전부 현지 화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환경도 열악하고 정부의 통제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M국의 어려운 상황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 화교 사회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M국이 복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도자 양육

X지역의 TEE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교회에서 보안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의 수업이 벅찼는지 최근 몇몇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과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남은 시간 잘 이끌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향후 전과정을 마친 후에 인도자 심화훈련을 통해 강사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학생들을 선정하여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 전임사역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 전반적으로 목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임 받은 자매가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로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G선교회

6개월 간의 본국 사역을 마치고 I국으로 귀임한 G선교회의 C선교사 가정은 이제 지역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곳의 생활과 사역을 정리하고, 무슬림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협력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이동해서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팀에 들어가서 기존 사역자들과 연합하는 부분에도 큰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이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 길을 갈 때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오신 동역자님들과 교회들이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서 주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주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박주용 이주영 조셉 다니엘 드림

기도제목

1. 가족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도록. 맡겨진 사역을 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한국에서 생활하는 두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2. X지역 지도자 훈련을 통해 사역자들과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성장하도록. S신학교와 G신학교 학생들의 사역을 인도해 주시기를.
3. G선교회 선교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인도해 주시도록. 특히 지역 이동 예정인 C선교사 가정이 새로 합류하게 될 팀에 잘 적응하고 좋은 연합을 이루도록.
4. 일대일로 만나고 있는 B 형제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돕도록. B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도록.